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13천 Km ²	GDP	153억 달러(2010년)
인구	7.6백만 명(2010년)	1인당 GDP	2,016달러(2010년)
정치체제	민주주의	통화단위	Lempira(La)
대외정책	실리추구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18.9(2010년)

- 온두라스는 중미 카리브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동국은 전통적 농업국가이나, 최근 수년간 미국의 무역특혜조치에 힘입어 보세가공수출업(Maquiladora)을 장려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연료 및 제조업 수입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등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기후조건 등의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세계경기 회복과 대외원조 재개에 힘입어 성장세 플러스 전환

- 온두라스 경제는 2004년 HIPC(고채무빈곤국) 프로그램의 완결시점 도달 이후 미-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체결, 마킬라 산업 (보세가공업) 및 관광업 호조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미 수출과 FDI 유입이 급감하고 해외 근로자 송금 축소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4.2%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는 미국 경제 침체 지속으로 수출과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군부 쿠데타의 영향으로 대외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2.1%)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 대외원조 재개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2.8%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6.7	6.2	4.2	-2.1	2.8
재정수지/GDP	-1.1	-3.1	-2.5	-6.2	-4.8
소비자물가상승률	5.6	8.9	10.8	3.0	6.5

자료: IMF, EIU.

□ 국제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압력 가중

- 2007년에는 고유가 및 옥수수 등 식품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 가까이 상승하였고 2008년에도 9월까지 지속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군부 쿠데타 이후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및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기조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를 기록하며,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010년에는 국제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5%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렘피라(Lemipra)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수출 구조

- 주요 수출품목이 커피, 새우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 아연 등과 같은 광물 자원 위주의 1차 산품으로 국제가격변동과 기후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설비

- 낮은 국민소득, 자본재 산업 미비 등으로 인해 전력, 도로, 통신 등 각종 인프라 설비가 미약하여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산업용 중간재, 자본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매년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분의 대부분을 국제기구 등의 원조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DR-CAFTA 발효로 투자환경 개선

- 2006년 DR-CAFTA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한 외국인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2009년 6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셀라야 대통령이 축출당하고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각종 투자계획이 취소되고 유입액 또한 급감하였으나, 2009년 11월 대선을 통해 Sosa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국이 안정을 되찾고 있고, 2011년 6월 미주기구(OAS)로의 재가입 성공과 더불어 중미통합체제(SICA)로의 복귀 전망도 밝아짐에 따라 향후 투자환경 개선이 기대됨.

□ 마길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 온두라스의 마길라 산업은 1983년 중미·카리브지역무역특혜법(CBI)과 2000년 중미·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 시행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외화·고용·투자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노동력 질 향상과 기술 도입을 촉진하면서 온두라스의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 2007년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과 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대비 3.1% 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지출이 지연되면서 적자폭은 2.5%로 소폭 축소됨.
- 2009년 온두라스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 삭감, 인프라 개발 지원 중단 등 정부지출 대폭 삭감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정치 불안으로 인해 대외 원조가 중단되고 경기 침체로 세원이 급감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6.2%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출 감축 및 공무원 임금 삭감 조치,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4.8%를 기록하며, IMF의 목표치인 4.5%를 소폭 상회하였음.

3. 대외거래

□ 수요 증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 소폭 증가

-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수출은 2003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작황 호전과 마길라산업 호황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006년 발효된 DR-CAFTA의 영향으로 수출규모는 2008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상품수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마길라산업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에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커피, 바나나, 새우 등 3대 품목의 대외 수요가 증가하고 중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면서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석유와 소비재 등 수입 증가율이 전년 대비 18%에 달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43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미국의 수요 감소, 농작물 작황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도 전년 대비 25% 가까이 축소되면서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25억 달러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수요회복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품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

□ 경상수지 적자 규모 증가추세 지속될 전망

- 온두라스 경상수지 적자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와 과중한 외채이자 부담 등으로 다소 과도한 수준이며, 2005년 3% 수준이던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인해 GDP 대비 15%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감소 등으로 경상이전수지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대로 개선되었으나, 2010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6%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404	-1,116	-2,128	-516	-955
경 상 수 지 / G D P	-3.7	-9.0	-15.3	-3.6	-6.2
상 품 수 지	-2,027	-3,104	-4,254	-2,474	-2,808
수 출	5,277	5,784	6,199	4,825	5,742
수 입	7,303	8,888	10,453	7,299	8,550
외 환 보 유 액	2,616	2,514	2,460	1,909	2,498
총 외 채 잔 액	4,184	3,311	3,508	3,675	3,748
총 외 채 잔 액 / G D P	38.3	26.8	31.4	27.0	27.4
D. S. R.	4.9	5.1	4.8	11.0	4.7

자료: IFS, EIU.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FDI 유입액 감소

- 온두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섬유, 의류 기업의 투자확대, 통신업과 제조업에 대한 현지공장 설립 등의 이유로 2002년 2.7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9.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총 투자의 70% 이상이 미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에도 금융, 통신,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국, 멕시코 등으로부터 크게 유입되면서 9.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09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 쿠데타로 인한 정국불안으로 인해 유입액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44.4% 감소한 5.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수요회복으로 제조업(특히, 휴대전화)과 금융업에 대한 유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2억 달러 증가한 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자유당(PL)과 국민당(PN)의 양당제 정치체제 유지

- 군사쿠데타 발발과 군사독재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다가 1971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민간 정부가 수립되었음.
- 빈번한 쿠데타로 인해 수차례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정당의 발달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국민당(PN)과 자유당(PL)의 양당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2009년 6월 군부 쿠데타 발생

- 2005년 11월 집권한 자유당의 셀라야 대통령은 좌파 동맹국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 성공한 제헌의회 설립→국민투표 실시→헌법 개헌(연임 허용) 등을 통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군부, 의회, 대법원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음.

- 이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민투표 당일 새벽(6월 28일, 현지시간) 온두라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쉘라야 대통령을 체포하고 코스타리카로 축출하였음.
-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고 자유당의 미첼리티 대통령 권한 대행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정국 불안 양상이 지속되었으나, 미국의 중재로 11월 29일 대선을 치르기로 양측이 합의함.

□ 2009년 11월 대선에서 국민당의 Sosa 후보 당선

- 2009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당의 Sosa 후보가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9%의 득표율을 기록한 자유당의 Santos 후보를 따돌리고 2010년 1월 취임하면서 정국은 다소 안정 국면에 접어들.
- 2011년 5월 28일, 쉘라야 전 대통령은 16개월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망명생활을 끝내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중재 하에 귀국함. 이는 정부가 미주기구 복귀와 외국 투자 및 원조를 대가로 그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짐.
- 쉘라야 전 대통령은 최근 온두라스 법원에서 집권시절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고, 좌파정당 및 여러 사회 집단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정치권력 탈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 빈곤,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인구의 40% 이상이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인구의 50% 이상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의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3.4% 소득을 점하고 있는 데 그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함.
- 또한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기승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실업률: 3.0%(2008년) → 3.2%(2009년) → 5.0%(2010년)

3. 국제 관계

□ 중남미 주요국들과의 관계 회복 노력

- 2009년 쿠데타 이후 셀라야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그 해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소사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주변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소사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사 정권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음.
-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좌파성향의 국가들은 셀라야 대통령의 안전한 귀국과 정치활동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사 정부를 압박한 바 있음. 셀라야 대통령은 재임시절 이들 국가들과 정치적 동맹 관계를 확대하며 남미 좌파연맹인 ALBA, Petrocaribe 등에 가입하였음.

□ 미주기구(OAS)로의 복귀 성공

- 쿠데타 발생 이후 미주기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온두라스는 이후 미주기구 복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음.
- 최대 경제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친서방·우익성향의 Sosa정권이 들어선 후 보다 친밀해졌으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10년 6월 3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주기구 총회에서 온두라스의 재가입 승인을 촉구하는 등 복귀를 강력히 지지하였음.
- 2011년 6월 1일, 미주기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총회에서 33개 회원국 중 32개국의 찬성으로 온두라스의 회원국 복귀를 인정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셀라야 전 대통령의 귀국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음.
- 에콰도르는 당시 셀라야 전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온두라스의 복귀에 반대표를 행사함.

- 이로써 온두라스는 미주기구 복귀로 회원국 간 관계개선은 물론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지원이 재개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채무탕감으로 외채규모 감소

- 1980년대 중반 시작된 외채위기로 1989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1991~92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 파리클럽 및 주 채권국인 미국의 지원으로 채무지급 중단 사태에서는 벗어남.
- 1997년 47억 달러 수준이던 총외채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는 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 HIPC 완결시점에 도달하는 한편, 파리클럽 채무에 대한 추가 삭감으로 외채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HIPC 완결시점(Completion Point) 도달

- 2000년에는 Enhanced HIPC 수혜 대상국가로 선정되었으나, 재정적자 확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IMF의 PRGF 프로그램 및 채무구제가 잠정 중단된 바 있음.
- 그러나 2004년 2월 PRGF 프로그램이 재개되었고, 2005년 4월에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9억 달러(NPV 기준으로 5억 5,600만 달러)를 탕감받음.
- 수출개선과 함께 채무구제가 확정되어 D.S.R.이 4%대로 낮아졌으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차관이고 단기외채 비중도 10%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1.7.)	D1 (2009.12.)
OECD	6등급 (2011.7.)	6등급 (2010.7.)
S&P	B (2009.9.)	B+ (2009.6.)
Moody's	B2 (2010.10)	B2 (1998.9)
Fitch	-	-

□ 주요 평가기관 신용도 등급

- OECD는 1999~2006년까지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07년 개선된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09년 발생한 쿠데타로 인한 내수경기위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력 상실, IMF지원을 비롯한 국제원조 중단 등을 이유로 온두라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한편 Moody's는 1998년 9월 B2등급을 부여한 이후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 4. 1.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 ('70), 투자보장협정 ('00),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0), 경제과학기술협정 ('10)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온두라스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30,729	80,617	106,253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수 입	36,522	31,112	70,482	커피, 아연
합 계	167,251	111,729	176,735	

자료: 한국무역협회

□ **DR-CAFTA 발효 이후 교역량 감소 추세**

- 2006년 DR-CAFTA가 발효된 이후 역내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010년 수입급증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 우리나라는 1970년 대 온두라스 교역이 개시된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0년에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은 전년대비 31.8%증가한 10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26.5% 급증한 70백만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27.7%감소함.
-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등이며, 수입은 온두라스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 아연, 새우 등으로 1차 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대 온두라스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 의류 및 섬유 분야에 집중**

- 우리 기업의 온두라스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말 누계 기준 총 46건, 113백만 달러가 투자되었음.
- 온두라스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의 대부분은 의류 및 섬유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자 500명 이상의 중형업체 20여 곳을 포함, 약 5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V. 종합 의견

- 동국은 2009년 미국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군부 쿠데타로 인해 대외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소비개선 및 해외근로자 송금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정치적으로는 군부 쿠데타 발생, 과도정부 수립, 대선을 통한 신 정권 탄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국혼란을 겪었으나, 소사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주기구 복귀에 성공하면서 중남미 주요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대외지급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문의 : 조사역 최철영(☎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